

# 새 패러다임 선포 ‘공동체 기반 주민 참여’ 늘린다

## 전남도립미술관 새해 사업계획 발표

‘남도 수목 세계화’·‘동시대 미술 담론 확산’ 목표  
남중화 전통 재조명·AI 최첨단 융복합 전시 주목  
문화적 거버넌스 형성하는 공공 플랫폼 수행 다짐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이자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을 선포하고, 지역 문화의 확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립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립미술관은 △‘남도 수목의 세계화’ △‘동시대 미술 담론의 확산’ △‘참여형 미술관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 전시·연구·교육·국제 교류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남도 수목의 세계화를 위해 남중화 전통 화맥 등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다. 김선두 초대전과 허달재 초대전을 시작으로, 남도 1000년의 역사 속에 축적된 문화예술 자산을 동시대적 시각으로 해석한 ‘천년의 보물’전을 선보인다. 또 ‘BLACK & BLACK’전은 전남·중국 상하이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상하이 중국미술관(China Art Museum)에서 새로운 구성으로 소개, 남도 수목이 지닌 역사성과 조형적 실험성을 국제 미술 담론 속에서 재맥락화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동시대 미술 담론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원주민과 토착민, 공동체 전통문화를 조명하는 ‘인디 저너스 아트’(Indigenous Art) 전시를 비롯해, 전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을 기념하는 최첨단 융복합 전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섬·바다·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한 바다에 그리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더불어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젊은 작가들의 창작 거점인 ‘르 원더’(Le Wonder)와 전남 청년작가들이 협업하는 ‘국제 교류 전시’(전남·파리)를 기획, 지역 작가의 해외 진출과 동시대 미술 담론의 공동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학술·연구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개관 5주년을 맞아 남도 천년의 예술 전통을 기반으로 전남 미술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연구·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2025년 수행한 아산 조방원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하반기 재개관 예정인 분관 ‘아산조방원미술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남도 수목



이지호 관장



전남도립미술관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이자 개관 5주년을 맞아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 선포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어린이 전시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렸던 ‘기다려·색·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들 모습.

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여기다 여수 출신 손상기(1949~1988) 화백과 그의 예술세계 및 한국 미술에 영향을 준 1950년대 유럽 앵포르멜의 대표 작가 장 포트리에를 연결하는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손상기’전을 진행해 지역 미술을 한국미술과 세계 미술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와 함께 75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표준관리시스템(UMSS)을 활용해 소장품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 참여형 미술관 구현을 위해 전남도립미술관은 지역 참여형 미술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어린이날 미술 페스티벌, 전시 연계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가족 친화적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성인 대상 아카데미를 세분화·전문화해 다양한 참여 계층의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모차 데이’, ‘실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령·세대·신체 조건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미술관으로 운영할 복안이 다.

이지호 관장은 “전남도립미술관이 지역과 국제를 잇는 대표 공립미술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민과 관람객의 지속적인 지지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날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미술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고 문화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2026년은 관람객 중심의 참여 공간 확대, 콘텐츠의 다층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사회와 예술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빛에 대한 연구’



‘human. move on’

## 사람들 생각과 믿음…색과 빛의 작업으로 재해석

정정하 개인전 9일까지 서울 다이아몬드지서

최근 작업 변화 조망…대형 100호 1점 등 30점

색은 장식이 아니라 선택의 흔적이다. 작가는 그 흔적에 깃든 사람의 에너지와 삶의 방향을 빛으로 기록해왔다. 건축용 페인트와 레진으로 구현된 색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대신해 전시장에 놓이고, 그 위에 더해진 미미한 개입은 인간이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작가의 믿음을 드러낸다.

이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색과 빛의 작업으로 풀어낸 정정하 작가의 이야기다. 이런 정정하 작가 개인전을 지난 12월 18일 개막, 오는 9일까지 서울 해방촌 다이아몬드지서(Diamond G)에서 진행한다. 출품작은 대형 100호 작품 1점과 120호 변형 작품 5점 등 총 30점.

‘색전’이라는 전시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대표 연작 ‘흡수와 반사’ 시리즈 및 ‘무브 온’(Move On) 시리즈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어 최근 작업의 변화와 확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흡수와 반사’ 시리즈는 작가의 또 다른 연작인 ‘라이트 픽셀’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페인트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선택한 색이 시험관에 수집되고, 이후 캔버스 위에서 레진 안에 고정된 추상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실린더 속에 담긴 색의 개념은 선명한 빛깔로 기록되며, 작품에 새겨진 번호는 각 개인이 선택한 색의 식별 번호이자 한 사람의 삶과 의지를 기념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작품에 표기된 A.R.은 ‘Absorption & Reflection’(흡수와 반사)의 약자로, 인간의 에너지를 흡수해 색으로 반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를 “빛을 모은다”고 표현한다. 빛이 있어야 색이 보이듯, 색을 인간의 에너지이자 존재로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이 이 연작의 바탕에 놓여 있다.

이어 ‘무브 온’ 시리즈는 사람들이 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아주 미묘하게 개입했을 때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던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페인트 컬러 위에 또 다른 색을 떨어뜨리거나, 캔버스의 높낮이를 조절해 방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완성된다.

정정하 작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인정, 희망, 존중을 “좋은 에너지의 제안”으로 작품 안에 담는다. 사람의 선택은 강요가 아닌 제안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믿을, 그리고 그 미미한 개입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연작의 핵심이다.

작가는 “2025년을 열심히 살아온 모두가 전시장 안에서 색으로 이뤄진 사람들의 선한 인간성을 느끼며,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하 작가는 조선대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 일반적인 물감 대신 건축용 페인트와 에폭시 레진을 사용해 레진의 두께 차이로 빛의 투과와 반사를 유도하는 평면 추상 회화를 제작해 왔다. 페인트 매장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마주한 경험은 그의 작업 세계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색채연구: 개념적 질감’, ‘우리가 곁에 빛을 두는 이유에 대하여’,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등이 있으며,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제21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21’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3년 제29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존재 근원 파고드는 직관…깨달음의 시학

3년 만에 신작시집 낸 홍관희 시인  
‘그림자 속에 숨겨 두었다’ 선보여

나주 남평 드들강변 북카페 ‘강물 위에 쓴 시’를 운영하며 문학거점의 한 축 역할을 기꺼이 수용해온 홍관희 시인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신작시집 ‘그림자 속에 숨겨 두었다’를 문학들 시인선 41번째 권으로 최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지난 2022년 ‘사랑 1그램’을 펴낸 후 3년여만에 출간한 것이다.

앞선 펴낸 시집 ‘사랑 1그램’이 한층 농익은 시선으로 자연에 깃든 삶의 무늬를 섬세하고 온기 어린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한편, 시집 곳곳에는 삶과 자연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문장들이 구사됐는데 자연을 고스란히 닮아 있다. 이에 반해 이번 시집은 읽을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파스칼처럼 세상에 대한 경건함, 나 아닌 타자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는 설명이다. 시 안에서 읽히는 그 경건함은 물론이고 배려는 낮은 자세로 자신의 욕망을 비우려는 자세에서 오는 동시에 각박한 세상,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시집의 제목이 된 ‘그림자 속에 숨겨 두었다’는 삶의 근원 혹은 본질에 대한 비유로 읽힌다. 허상 속에 실상을 잠시 비껴 세워 둔 것이다. 그 실상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않는다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존재다. 결코 드러내지 않지만 본질에 대한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치 수도자처럼 현실에서 한발짝 비켜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자체를 망각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현실을 더 세밀하게 조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아울러 꽃잎의 화려함보다도 꽃과 나무라는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직관은 시적 대상을 ‘나’를 통해 바라보지 않고 ‘너’ 자체로 인지하려는 낮은 자세에서 왔다. 이러한 태도는 태생적으로 시인의 품성에서 비롯됐겠지만, 살아오면서 겪은 낮은 자리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인은 ‘나무와 꽃이/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이//꽃에게는/가장 긴 시간이다//꽃의 일생이 물려 있다’(‘낙화의 순간’)고 노래한다.



종소리의 근원과 궁극은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홍 시인의 시는 한마디로 사랑 노래라 할 수 있다. 낮아지고 배려하며 현신하면서 근원과 궁극의 이치에 닿고자 하는 수도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가 다니는 남평성당 신부님의 강론에서 얻은 시 ‘생각의 끝 너머가 기도이다’는 제목만으로도 수도자적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틀테면 ‘생각의 끝 너머가 기도이다’에서 시인은 ‘성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생각의 끝 너머로 들어가서/오래도록 나오지 않을 때는/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세계도/기도로 바뀌지 않는 게 없다’고 읊고 있는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오늘도 시인은 한없이 낮아지면서 강을 건너다. 그가 강을 건너는 것은 ‘너를 닮은 꽃’이 강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도, 내일도 강을 건너는 것은 ‘너’라는 존재가 강 너머에 있어서다.

시인은 ‘강을 건너기 전에는/강은 한 번만 건너는 것인 줄 알았다//너를 닮은 꽃은 언제나/강 너머에 있었다’(‘너를 닮은 꽃’)고 인식한다.

이번 시집은 “너를 닮은 꽃은 언제나 강 너머에 있었다”를 비롯해 ‘누구는 종소리를 씻소리 로만 듣고 누구는 말로도 들었다’, ‘여기에서도 그곳을 살았다’,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등 제4부로 구성, 일상 틈틈이 창작해온 시 70여편이 실렸다.

홍관희 시인은 광주 출생으로 ‘한국시학’으로 등단. 첫 시집 ‘우리는 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펴낸 이후 지금까지 ‘그대 가슴 부르고 싶다’, ‘홀로 무엇을 하리’, ‘사랑 1그램’을 펴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